‘맛+첨단 기술’ 광주 김치산업 키운다

市,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 수립
김치축제·김장대전 등 홍보 창구로
관련 산업 육성·기업 홍보 등 지원

광주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광주의 맛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김치산업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맞춤형 상품개발과 소비 확산, 브랜드 가치 확산 등 광주 김치산업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맛의 고장 광주가 선점해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푸드테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련 정책을 육성할 방침이다.

광주 김치 생산량은 1인 가족 증가, 온라인 주문 확대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

시는 일단 지난해 10월 광주 김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하고, 중국산 김치와 차별성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또 강소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차별성 있는 상품을 개발해 공공 급식, 외식업소 등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김치 축제, 빛고을 김장 대전, 광주 식품 대전 등 광주 대표 김치축제를 음식문화 홍보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치 축제는 지난해 10만여명이 찾으면서 6억 7000만원, 빛고을 김장 대전은 14억 7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광주 식품 대전에선 65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올해 광주김치축제에서는 김치와 음식의 만남을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손길이 어우러져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특별한 천인의 밥상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해마다 김장대전 레시피의 배추김치를 찾는 시민을 위해 빛고을김장대전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개최 시기를 앞당겨 김치축제에 우승작품을 전시하고 시판하는 등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맛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 10월 개최 예정인 광주식품대전에서는 농식품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강화하고, 미래성장산업인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 농업과 푸드테크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최신 푸드테크 기술과 제품도 선보일 방침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광주는 맛의 본고장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산업화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계획”이라며 “올해 김치축제도 광주 대표 식문화를 알리는 축제로 대전환해 한 단계 향상된 문화축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김치산업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서구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광주김치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명인 김치를 맛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해법 찾기

18일 시청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민설명회’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시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시민설명회는 민선 8기 시정목표 중 하나인 ‘스포츠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체육시설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보장·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용역사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광주지역 곳곳에 들어서 있는 공공체육시설 273개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광주지역 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실행계획, 체육시설 활성화 및 확충계획 등 광주시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안)을 설명하고, 시민 질의응답 등을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공공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광주시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이 실행정책으로 입안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방치된 빈집·공공 체육시설 점검

6대 중점 점검 분야 선정…붕괴·화재 등 시기별 수시 안전 감찰

광주시가 오래 방치된 빈집, 공공 체육시설 등 안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광주시는 “6대 중점 점검 분야를 선정해 올해 안전 감찰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분야는 장기 방치 빈집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처리, 공공 체육시설 관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대형화물차 안전관리다. 광주시는 붕괴, 화재, 폭염 등 시기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수시 안전 감찰도 할 예정이다.

안전 감찰은 사회 전반의 안전 위협 요인과 행태를 ‘감찰 관점’에서 접근해 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시는 2018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육교 시설, 소규모 건설 현장 등 6개 분야 안전 감찰에서 242건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고 개선 과제 3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갈수록 대형화·복합화하는 재난에 맞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감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82억 투입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인권·안전 보장 등 30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여건에 맞춰 고품질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규사업 13건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보수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지원 ▲인권·안전 보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처우개선 협력 강화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타 시·도의 처우개선 우수사례 분석, 도내 유형별 종사자의 의견조사(600명), 직급(계층)별 심층 면접(7회),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 개최(3회),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200명) 등을 통해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시군별 준수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원, 이용 시설 9만원, 노인요양시설 5만원의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일·생활의 균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건강검진 공가제 1일, 장기근속휴가 5~10일, 자녀돌봄휴가 2일, 유급병가 지원 60일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권장한다.

또 종사자 휴가로 인한 시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과 안전 보장으로는 전문변호사의 1대 1 법률 전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녹음전화기 등 폭력예방 보호장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문노무사의 노무분쟁 해결 현장 컨설팅과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 1만원) 지원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전남도, 시·군 유관기관 간담회

전남도가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15일 순천 동부청사에서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군,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청년인구 정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을 위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은 사회적경제를 이끌 우수 청년 인력을 양성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청년 인구를 정착시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연간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마을공동체 올해 200개소 모집

이달까지 신청…18일까지 순천·나주·도청사업 설명회

전남도가 2024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6일 순천 동부청사 이순신강당, 17일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 18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등에서 권역별 공모사업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주민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공동체 활동 성격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성장정도에 따라 씨앗, 새싹, 열매 단계로 구분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300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씨앗 단계는 500만 원 이내, 새싹 단계는 1000만원 이내, 열매 단계는 2000만원 이내 사업비가 지원된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나이, 소득, 성별에 제한 없이 이웃끼리 서로를 돌보는 마을돌봄 문화를 조성해, 작은 마을까지 미치지 못하는 공적 돌봄의 빈자리를 메꾸는 사업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200개소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동체는 1000만원 이내의 돌봄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